내 근본 한군데에서 마음의 봄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사계절 없는 마음의 봄이 와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봄 말입니다. 사계절이 있는데 겨울이 좋은 사람은 겨울로 쫓아가고 여름이 좋은 사람은 여름으로 쫓아가고, 가을로 봄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쫓아다니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근본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근본 한군데에서 봄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곤충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생에 대한 문제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사계절 없는 마음의 봄이 된다면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수억겁을 거치며 쫓고 쫓기면서 살아온 악업 선업을 잔뜩 짊어지고 이 세상에 나서 지금 모두 살고들 계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과거가 따로 없고 미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을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을 것이고 현재는 공했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공한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봄을 찾지 못한다면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며, 항상 얘기드리지마는 악업 선업의 업식 속에서,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업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수없이 행해 온 악한 일 선한 일들이 용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 수십억의 업식들이 화해서 내 눈앞에, 죽은 그 혼백 앞에 그냥 줄줄이 늘어서게 되니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으니까 벗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업식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것을 말하기 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처님께서 네 여자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신다면 군더더기로 또 말할 거 없고요.

대중 모릅니다.

큰스님 어떤 남자가 마누라를 얻어서 참 근근득생 살았더랍니다. 그러다가 좀 살 만하게 되니까 첩을 하나 얻었죠. 하하하…. 아마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첩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그냥 온통 미쳐서 정신없이 끌려가다가 첩을 또 하나 덜컥 얻었어요. 그러고는 정신없이 몇 해고 가다가 또 새 첩을 얻었죠. 첩을 셋이나 얻은 겁니다. 그래서 새 첩을 얻어서 거기에 미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더니 그만 어느 땐가 덜컥 죽어 버렸단 말입니다.

죽어서 셋째 첩에게 "너 같이 가자." 하니까 세상에, 방문 안에서 인사를 하곤 그냥 대척도 안 하더랍니다. 둘째 첩에게 또 가자고 하니까 아예 대문 안에서 그냥 고하고 말아 버리더랍니다. "네가 좋아서 나를 쫓아왔지 내가 좋아서 너를 쫓아다닌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왜 쫓아가느냐." 하면서 안 가더랍니다. 그래서 또 첫째 첩에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동구 바깥에서 그냥 인사를 올리고는 안 가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마누라는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 죽으나 사나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으나 사나 같이 가야지 어떡하느냐고 하더랍니다. 가장 천대받고 가장 무시당했던 마누라가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네 여자로 비유했느냐? 셋째 첩은 금은보화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방에서 나가는 일이 없죠. 둘째 첩은 집이니까 대문 안에서 나가는 법이 없죠. 또 첫째 첩은 부인이나 자식들이나 또는 사회 인사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니 동구 바깥밖에 더 나갑니까? 지금으로 치면 화장터, 묘지 같은 이런 데까지밖에는 더 나갈 수 없죠. 거기서 하직을 하죠. 그러니 죽어서 갈 때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고 말입니다. "죽으나 사나 같이 다녀야지 어떡하느냐?" 하는 큰마누라는 바로 업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업식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식마저도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죽으면 자기 몸까지 다 버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몇천 년 몇만 년 살 것같이 마음이 그냥 거기에만 온통 쏠려 가지고는 아우성을 떨다가 털컥 망하거나 뭐가 잘못되면 병까지 든다 이겁니다. 사람이 병까지 들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를 깎아 먹는 일이지 자기를 승화시키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게 마음의 탓이라 이겁니다. 말이 딴 데로 샜어요. 근데 정작 죽어서도 업식은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혼백이 죽은 몸뚱일 버리고 딱 나가 보니까 자기 살았던 대로 업식이 늘비하게 쫓아다니니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죠.

또 거기에서 어떡어떡하다 벗어났다고 봅시다. 그런데 '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 하는 것은 나라는 걸 빼 버려라 이겁니다. 공했다는 걸 알아라. 나라는 게 있다면 의식적으로 나를 내세우게 되고 또 그게 화해서, 죽어서 몸뚱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뚱이가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려고 강가를 돌면서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갈 수가 있나요? 그래 강가를 돌면서 배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오백 년도 가요 천 년도 가요,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둘 아닌 줄을 몰라요. 항상 변하고 부서지고 돌아가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불바퀴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둘이 아닌 줄 알고 둘이 아니게 나투는 줄 안다면 그냥 불바퀴가 돼 버릴 텐데, 불바퀴에 닿으면 타 죽는 줄 알고는 거기에 접근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중생을 면치 못한다 이 소립니다. 이 세상만사가 다 조그만 불바퀴가 있는가 하면 큰 불바퀴가 있어서 함께 돌아갑니다. 우리네 이 몸을 혹성이라고 가정하면 그 혹성 가운데에 별성이 있고 별성 가운데에 그 뜻이 있고 바로 의식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이 일체를 들이고 냄에 있어서 광력 전력 통신력 자력을 충만히 엮어 나가면서 내면세계의 인연의 줄을 타고 그냥 돌아가는데, 이걸 모르니까 깜깜하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무(無)의 세계,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50%를 깜깜하게 모르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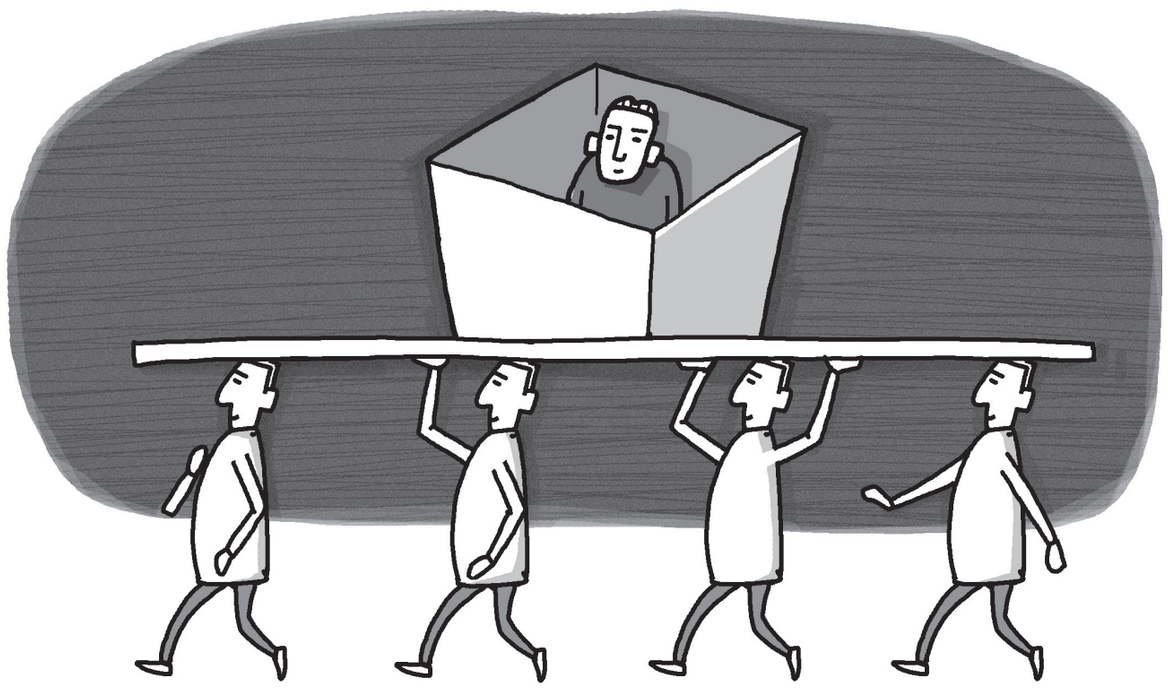
그러니 유(有)의 세계, 물질세계만 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누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바도 없는데, 누구한테 칭찬받을 줄도 모르고,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먹고살 양으로만 애쓰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먹고만 살려고 하는 자는 돼지와 같으니라. 돼지에게 옥을 준들 옥을 알랴." 사람이 살 양으로 먹나, 또 먹을 양으로 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점도 있지 않아요?

생명의 근본이라 한다면 우리 인간의 생명, 근본만이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고로 작은 거나 큰 거나 생명은 다 같습니다. 이것을 만날 전력으로 비유하는데, 전력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모두 그 불 들어오는 것만 봤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못 보시죠? 그리고 아주 커다란 모터가 돌아가는 것만 봤지 전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오고 간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주 만유가 다 인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연의 법칙, 바로 인연의 줄이, 줄이 없으면서도 있죠. 그렇게 전력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나가는 것도 모르지만 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듯이, 인연의 줄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불가에서는 법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연줄을 '가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모두가 가설이 돼서 재깍 불이 들어왔다가 재깍 나가고, 재깍 들어왔다가 재깍 나가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나툼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데는 불을 켜려면 붙여야 되고 불을 끄려면 떼야 하는 작용을 여전히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

☞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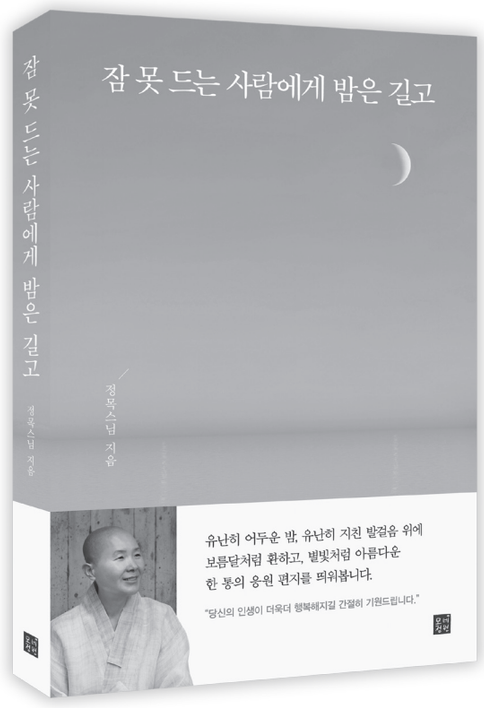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모네의 정원 TEL. 02-2004-8253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